

族譜序

木有根水有源人而無譜乎譜也者氏族之史也祖先之名諱生卒懿行毓德
煥然而著子姓之繁衍昌大支分昭穆爽然而見可以講明於數千載之後譜
其可率爾易言也哉昔者瑞石公惟懼其代遠歲久文獻無徵故編而輯之伊
後繼繼承承補而增之以故後世子孫能知其祖先之世德之顯晦而且爲欽
慕記頌之資猗歟盛哉爲我子孫者能推其祖先之以繼先牖後之事爲心毋
忝爾祖聿修厥德是余平日所望於諸宗而又自勉焉者也惟吾光山金氏自
始祖王子公以下世德赫赫爲東方甲閥世所共知而且悉於舊譜序記誌文
則不必架疊而是譜也雖不若大同之周遍於文烈公派譜亦無所憾焉主幹
是役者實達洙氏也而氏往年重修其七代祖旌閭閣且就此譜而專心戮力
正單纔訖將付于梓囑余于舊譜文獻國文解釋以便考覽之事且請弁卷之
文以余無文何敢當是役哉辭而不得畧叙如右

檀紀四千三百十一年戊午清明節族後孫允中謹書

族譜序

나무는 뿌리가 있고 물은 근원이 있거늘 사람이 族譜 없으랴 族譜는 氏族의 역
사라 祖先의 名諱와 生卒年月日과 아름다운 行蹟과 큰 德이 빛나게 나타나고 子
孫의 불어나고 昌大함과 가지로 나뉘는 차례가 자상하게 나타나서 可히 數千해 뒤
에도 외우고 밝힐수 있으니 族譜를 可히 경술하고 쉽게 여기랴 옛적에 瑞石公이
오직 代數 멀어지고 해가 오래되면 文獻을 증거할수 없을까 두려워 하사 없어서
모으셨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이어서 보충하고 더 하신 연고로 後世에 子孫들이
能히 그 祖先世德의 나타나고 숨겨짐과 또 欽慕하고 記頌하는 자로 됨을 알수 있
으니 참으로 융성하도다 우리 子孫된자 能히 그 祖先의 선영을 잇고 後世의 길
을 열여주신 일로써 미루어 마음을 삼아 祖先에게 욱됨이 없게하고 스스로 그 덕
을 닦으라 이는 내가 平日에 여러 宗族에게 바라는 바요 또 스스로 힘쓰는 바로다
우리 光山金氏는 始祖 王子公으로부터 대대로 德이 赫赫하여 東方에 으뜸가는
門閥이 됨은 세상이 다 아는 바요 또 舊譜序文과 記文과 誌文에 다 기재되어 있으
니 덧붙여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族譜가 大同譜의 周遍함 마는 못하지만 文烈公
派譜에는 손색이 없으리라 이 일을 主幹한 분은 實로 達洙氏라 達洙氏는 往年에
그 七代祖 旌閭閣을 重修했고 또 이 族譜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수단 정초를
마치고 장차 인쇄에 매기게 됨에 나에게 舊譜文獻을 國文으로 解釋하여 보기 편

리 하제 할 일을 부탁하고 또 序文을 만듦라 하니 글 할 줄 모르느 나로서 어찌 敢
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만은 사양하되 언지 못하고 右와 같이 쓰노라

檀紀四千三百十一年 戊午年 清明節에 族後孫 允中 삼가 씀

族譜序

甲子

譜何肇其原於史乎昔黃帝氏有子二十五人得姓者十二周文有男斯百而知名者僅十人當是其時諒其無譜惟史歷紀帝王世數而公卿大夫世族著焉是足謂王公之譜然簡而嚴博而不辨間而興亡盛衰一姓之久傳必不掩疎漏夫質者文略者詳所因者然此後世姓譜之作自爲一家之史而人各親其親不獨親其親天地之大無有所憾者歟志有之死而不朽者三堯舜禹湯伊周孔孟之事豈人人能之范氏之貴見譏於叔孫況其下哉祖先之名諱昭昭歷載傳之千百世使來裔後昆朝夕宛然如復見之孝敬之心油然而生各親其親而不獨親其親天地之大人無有所憾者惟其譜乎我金爲東方大姓明君賢相哲人君子盛德大業磊落軒天地炳朗懸日星譜於國史於家上下二千載矣後之孫子其麗不億庶幾夙夜聿修厥德不悖於祖宗均視之仁可不愼哉自丙子大譜歲歷四紀雲仍之星列四方益繁且衍大同合譜事極浩大未易議到茲庸謹修典理公以下派譜規模節目一依舊例而益加詳訂

寧煩無略彰祖先之裕德敦宗族之厚誼夫天地之大人爲貴人之行仁爲大
仁之用莫先於親親親親之至萬物爲一體而大業以興吾祖宗之自裕裕昆
者豈不在茲乎書曰念茲在茲信克時忱斯譜也將以範天地之仁而不止爲
一家之史而已乎敢弁于卷首云爾

歲甲子春正月旣望後孫周鉉謹書

族譜序

族譜는 어느 때 비롯되었는고 옛적 黃帝軒轅氏 아들 二十五人을 두었은되 姓을
얻은이 十二人이요 周나라 文王은 아들이 百이로되 이름 아는이 겨우 열사람이
라 당시 일을 헤아려보면 족보는 없고 오직 사기로 역대 帝王의 世數를 기록하고
公卿大夫의 世族이 나타나니 이것이 족히 王公의 족보이다 그러나 간략하고 嚴하
며 넓고 分別할 수 없으며 間間이 興亡과 盛衰가 있으니 한 姓氏가 오래 傳함에
반드시 疎漏함을 염폐하지 못하리라 대저 질박하되 문채나고 간략하되 자상한 것
은 원인한바 있느니라 그러나 이는 後世에 姓氏의 족보가 한집의 사기가 되나니 사
람마다 그 親한 이를 親하게 여기거늘 홀로 그 親한 이를 親하게 여기지 아니하
라 天地가 크다하되 유감되는바 있지 아니함인저 죽은되 씌지 아니한 자 셋이 있으

니 堯舜禹湯과 伊尹周公과 孔子孟子의 일이라 어찌 사람마다 能하랴 范氏의 尊貴도 叔孫氏에게 조롱을 받았으니 하물며 그 以下사람이라 祖先의 名諱가 자상하게 실려 千百世에 傳하여 後世子孫으로 하여금 朝夕으로 宛然히 祖先들을 또다시 보는 듯하여 호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油然而生겨나 각각 그 親한 이를 親하게 여겨 기거든 홀로 그 親한 이를 親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오 天地가 크되 사람이 유감되 는바 있지아니한것은 오직 그 족보로다 우리 金氏가 東方에 大姓이 되어 明君과 賢相과 哲人과 君子와 盛德과 大業이 우뚝하기 天地를 비기며 빛나고 밝음이 해와 별 같아 나라에 족보 되고 집에 역사된지 上下二千해라 뒤에 子孫이 億뿐아 니니 거의 밤과 낮으로 그 德을 닦아 祖宗의 골고루 보살피시는 仁德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可히 삼가하지 아니하라 丙子大譜를 닦은뒤 四世紀를 지나여 子孫이 四方에 흠어져 더욱 번성하고 불어나니 大同譜는 일이 極히 커서 합의가 어려운지라 典理判書公以下 派譜를 만들기로 하고 規模와 節目은 舊例대로 하되 더욱더 자상하게 하며 차라리 번거롭되 너무 간략하지 말게하며 祖先의 큰 德을 들어내고 宗族의 厚誼를 도탑게 할지라 대저 天地가 크다 하되 사람이 가장 貴하고 사람의 行실은 仁이 가장 크고 仁의 用은 親한 이를 親하게 여기는것 보다 먼 저 함이 없나니 親親의 지극한 곳에 萬物이 一體되고 大業이 흥왕하나니라

우리 祖宗의 스스로 넉넉한 德을 子孫에게 넉넉하게 끼쳐주심이 어찌 여기 있

지 아니한가 書傳에 가로대 이를 생각하고 이에있어 능히 정성을 다 하라 하였으니 이 족보는 장차 天地의 仁을 법삼아 한 집 역사에만 그치지 말진저 敢히 책머리에 쓰노라

해甲子年 봄正月旣望日에 後孫周鉉 삼가 씀

丙子譜序

粵我先之以金爲氏自漢永平八年肇王於新羅羅之季王子遯于光山而仍爲貫式至今爲望蓋數千禩矣有姓則有族有族則有譜我譜之始未詳自何而今不可攷入本朝來昴仍雲世益熾昌一本而百其枝一枝而千其葉自同室而異宮異宮而散在四方戚單于下駸駸然若楚之越或遇於塗則塗人耳塗亦不遇則反不若塗之人遂至於日疎而日忘斯豈亶忘其族也乃亦忘其本也蘇明允譜其族而引之曰幸其不至於塗人使無不至於忽忘欲不忘乎則覽輒油然而感者其惟所自出之譜也舊有兩譜世遠而多缺漏光城府院君瑞石公篤於族就是譜而是正差謬後丁卯公從姪知樞公又述世德而增補之伊來百三十年所更未之續京鄉宗哲咸以是憂謀所以丕修之壹以丁卯譜爲準曰分編曰追編曰別編皆繇新羅王子始母曰其冑遙遙其祚悠悠自吾祖王子公視之均是孫耳曷哉我同譜之冠若童祇奉此譜常如設黍之爲遡源而莫遠具邇吾先祖亦將有穀而世世詒之

崇禎後五丙子仲夏後孫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
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官 經筵日講官在

顯謹書

丙子譜序

우리 先祖의 金으로 氏를 한것은 漢나라 永平八年에 비로소 新羅에 王함으로 부
터 始作된 것인데 新羅末年에 王子께서 光山縣에 피해 살으심으로 本貫을 하여 至
今에 望族이 되니 벌써 數千해라 姓이 있으면 일가있고 일가 있으면 族譜있나니
우리 族譜의 始作은 어느 때 부터인지 지금 상고할수 없으나 本朝에 들어와 子孫
이 더욱 번창하여 한 나무로 그 가지가 百이요 한 가지로 그 잎이 千이라 同室로
異宮이요 異宮으로 四方에 흩어져 살으니 戚單이 오래 됨에 희미하여 楚나라 사
람이 越나라 사람 보듯하고 혹 길에서 만나면 길 가는 사람같이 여기고 길에서도
만나지 못하면 길 가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니 날로 멀어지고 날로 잊어 버리게 되
니 이어찌 그 宗族만 잊음이리오 이에 또한 그 근본조차 잊어버리게 되는지라 蘇
允明이 그 族譜序文에 말하기를 다행이 길 가는 사람 같이 여기지 말고 忽忽하게
잊어 버리지 말라 하니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보고 문득 감동할수 있는것은 오직 系

統 밝힌 族譜라 옛적에 두 차례 族譜가 있었으나 世代 멀고 缺漏됨이 많았음으로
光城府院君 瑞石公이 이 族譜의 그릇된 점을 是正하시었고 그뒤 丁卯年에 公의 從
姪 知樞公이 또 世德을 기록하여 增補하였으나 벌써 百三十年이 지났으되 다시 續
譜하지 못했으니 京鄉宗族이 이 일을 걱정하여 修譜할 의논을 정하고 丁卯譜를 表
準으로 하니 曰分編 曰追編 曰別編이나 모두 다 新羅王子로 부터 비롯되었으니
系統이 멀고 해가 오래 되었다고 말이라 우리 할아버지 王子公이 보신다면 모두 다
子孫이니 힘쓸지어다 우리 同譜한 冠과 童은 정성으로 이 族譜 받들기를 항상 밥
먹는것 같이 하고 근원을 찾아 멀리하지 말고 다 같이 가깝게 여기면 우리 先祖 또
한 녹을 갖아 世世로 나리시리라

崇禎後 五丙子仲夏에 後孫崇政大夫 行吏曹判書 兼判義禁府事知 經筵 春秋館事

弘文館提學 同知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 在顯삼가쓰

丁巳譜序

維我金氏族譜宗人之居嶺南者暨我出郡守宋熙業氏併有所編纂而閱歷年歲既久支派之日滋衍者未之續編闕漏放失太不可攷余爲是懼就兩譜是正差謬增修其未續編者而其夾註事實之或備或略同宗外裔之別也尤詳本派譜自我作故也外裔雖至十百世皆爲我出而聞見精力之有不能周及而遍舉也則無寧約而精也而兩譜三世之限又無所執据故今從喪服所暨限以女子之子此吾新譜凡例也古人之纂譜牒莫不以敦親睦廣仁恩爲務今吾宗人所當勉焉者亦惟在斯而余於是尤有所深感焉昔方遜志希直纂次宗儀以諗其宗人歷稱其曾大父西洲府君之純厚慤大先君太守貞惠公之廉介方正以爲後孫之準則其言勤摯懇到有足以感發人心者洪惟我金氏世種德襲美若始祖王子之先幾高蹈保身貽後固不可尙己厥若來或以文章節義或以事業勳閥赫烏無替而至于我曾大父文元公及厥嗣文敬公以道學經術爲世宗師及門之士有能稱述而闡揚者矣小子何敢容喙焉

噫凡我後孫簪組衿紳不淪胥爲輿僇者何莫非祖先覆露庇燾之餘也唯當
啓居食息毋忘我祖先矧斯譜也祖先之名諱稱號暨厥生卒爵位開卷在目
爲後孫者可不瞻對興懷思所以無忝我祖先也哉若或持身不遜悌執事不
恪勤安於傲肆狃於卑汚不免乎僇人賤行則其貽辱祖先也大矣詩曰無忝
爾祖聿修厥德余於世譜之成重以是自勗焉

歲在丁巳仲秋後孫萬基謹書

丁巳譜序

우리 金氏族譜는 宗人嶺南에 사는 사람이 내가 郡守로 나갔을 적에 宋熙業氏와
함께 編纂하였더니 해 지난지 오래되고 支派가 날로 불어나되 續編하지 못하니 빠
지고 유실됨을 자못 상고하지 못하게 되니 내가 이 일을 근심하여 예전 兩譜를 근
거로 하여 그릇된 것을 是正하고 續編하지 못한 것을 增修하니 그 옆주에 事實을
或完備하며 或간략 하게 함은 同宗과 外裔를 分別함ियो 本派는 더 자상하게 하
였으니 族譜를 내가 지은 때문이다 外裔는 비록 十百世에 이를지라도 다 우리로
부터 나갔으나 聞見하는 精力이 두루 列舉하지 못할지니 차라리 간략하고 精密하

계 할지라 兩譜에 三世로 限定했으나 증거할 수 없는지라 이제 喪服親을 좇아 女子의 아들까지 限定하니 우리 새 族譜의 凡例다 옛 사람이 譜牒을 編纂함에 親睦을 두텁게 하고 仁恩을 넓히는 것을 힘썼나니 우리 宗人들도 마땅히 힘쓸지어다 내여기에 더욱 느낌이 있노라 옛적에 方遜志希直이 宗儀를 편찬할적에 그 宗人이 말하되 그 曾大父 西洲府君의 純厚하고 正성스러움과 先君 太守 貞惠公의 청렴하고 方正함이 後孫의 準則이 되리라 하니 그 말이 극진하고 간절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도다

오직 우리 金氏는 대대로 美德을 傳하니 始祖王子公 같은 이는 먼저 기밀을 알고 괴란하여 몸을 보존하고 後孫에게 끼쳐 주시니 그 덕은 더 높을 수 없도다 그 뒤를 이어 或文章과 節義로 或事業과 勲閥로 빛나더니 우리 曾大父 文元公과 從祖父 文敬公이 道學과 經術로 세상의 宗師되시니 그 門下에 모인 선비들이 稱述하고 闡揚할만 한분이 많은지라 小子 어찌 敢히 덧붙여 말할 수 있으리요 아아 우리 後孫이 簪組衿紳으로 몰락하여 천인 되지 아니함은 모두 다 祖先의 蔭德이니 오직 편히 살고 편히 먹는다 하여 우리 祖先을 잊지 말지어다 이 族譜는 祖先의 名諱와 稱號와 生卒月日과 爵位가 책을 펴면 나타나니 後孫된 자 그저 호기심으로 보지 말고 祖先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 만일 몸가짐에 공손하지 못하며 일을 잡음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방탕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卑汚한걸 익히어 賤人의 행동을

면치 못한다면 祖先에 辱을 끼침이 크리라 詩傳에 말하기를 네의 先祖에게 욕되
게 하지 말고 그 德을 닦으라 하니라 내 世譜 이취짐에 거듭 스스로 경계하노라
해丁巳年 仲秋에 後孫萬基 삼가 씀

光山金

氏族譜

卷之一

一世

金興光

新羅國金氏王
子生于季世避
亂因家於武州
西一洞即後之
光州平章洞也
光山之金始於
此子孫多出平
章事後人稱平
章洞○謹按舊
譜憲康王第三
子或稱神武王
第三子而憲康
王只有一子孝
恭王嶢不合於
史乘且神武王
逢金明之亂與
妻子奔黃山津
口乘船往依清
海津（今莞島
）大使弓福云

二世

軾

角干即平章之
秩 謹按舊譜
王子之子軾軾
之子吉而義元
墓誌自估已上
皆失其名云則
其皆字之義非
一二代失名恐
似無疑而世代
玄遠文獻無徵
不敢書子字謹
俟後日

三世

估

三重大臣司空
○高麗太祖統
合時以奇偉之
策佐成王業稱
功臣焉○估舊
譜作吉而依忠
貞公墓誌正之

四世

子峻

三重大臣左僕
射 峻舊譜作
順而依忠貞公
墓誌正之

五世

子策

光宗甲子二月
登第趙翌榜
上御天德殿賜
宴特開儀鳳門
扶鞍而出官至
左僕射翰林學
士平章事諡文
貞公

六世

子廷俊

靖宗乙亥殿中
侍御史庚辰承
宣 文宗乙丑
御史臺事癸巳
參知政事乙未
內史侍郎平章
事官至守司徒
門下侍郎平章
事 廷舊譜作
貞而依忠貞公
墓誌正之

七世

子良鑑

文宗五年辛卯
文科庚戌行尚
書右丞諫議大
夫歷西北路兵
馬副使辛亥行
左丞知御史臺
事癸丑以太僕
卿如宋謝恩兼
獻方物翌年甲
寅圖太廟太學
而還蘇東坡贈
詩云乞與三韓
使新圖到樂浪
乙卯行右散騎
丙辰行同知樞
密院事戊午宋
使安燾陳睦等
入順天館公以
戶部尚書爲接
伴辛酉參知政

八世

子若溫

見本板

子義元

見二板